北 '우라늄 카드' 과시에 美 '비핵화 압박' 강화

북·미 강對강 대치…한반도 정세 불안

급 방한 보즈워스 "대화를 위한 대화 없다" 강조

우라늄 농축을 둘러싼 북·미간 기싸움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발전할 조짐이다.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의 핵인 원심분리기 카드까지 공개하며 '대화 압박'에 나서자 미국은 이에 물러서지 않고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을 겨냥한 '비핵화 압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흐르는 듯하던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급격한 불안정 기류에 휩싸이는 흐름이다.

21일 급거 방한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발언은 이번 파문에 대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기류를 정확히 대변해주고 있다.

보즈워스 대표는 22일 오전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문을 '도발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포용을 위한 포용은 없으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며 "근본적으로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있는 행동을 선행하지 않으면 적어도 현 상황에서는 6자회담 재개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우라늄 카드 파문 이후 '선(先) 비핵화-후(後) 6자회담' 기조를 적극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의 입장은 한·미, 나아가 한·미·일간에 긴밀히 조율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이 강(强) 대 강(强) 대치에 돌입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이 어디로 튈 지 모를 예측불허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북한은 계속 핵위협 카드를 노골화하며 긴장수위와 충격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미국 학자들을 불러 'HEU 프로그램'으로 사용될수도 있는 원심분리기 시설을 공개한 만큼 다음 수순은 보다 강경한 카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특히 일각에서는 3차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주부터 외신에서는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새로운 갱도를 만들며 핵실험 '준비단계'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은 한·미·일 제재공조와 5자 협의 프로세스를 강화하며 대북 압박을 가일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즈워스 대표가 이날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하고 22일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일종의 '대북 포위망' 구축 차원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적극적 외교교섭에 나설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사안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인 1874호의 정면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안보리 대응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이 취해야할 비핵화 선행조치의 리스트에도 포함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북한에 실질적 영향을 가진 중국을 설득하는데 외교력이 집중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을 일종의 중재자로 세워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역할을 만들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연합뉴스

"美 전술핵 재배치 검토"

김 국방장관 발언 논란

김태영 국방장관이 22일 국회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일각에서 언급하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핵억제를 위한 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면서 지금 말한 부분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의 이런 답변은 1991년 9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선언에 따라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를 미측과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장관의 발언이 자칫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위기 아일랜드 결국 'SOS'

EU·IMF 구제금융 수용

'켈틱 호랑이' 아일랜드가 재정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

아일랜드 브라이언 코웬 총리는 21일(현지 시각) 긴급 각료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EU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으며 동료 회원국들이 이에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는 EU 회원국 가운데 지난 5월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구제금융을 받게 된다.

코웬 총리는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경제문제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극복하고 다시 번영할 수 있다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무장관 및 EU 재무장관들은 이날 공동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우리는 유로존 및 EU 동료 회원국에 금융지원을 요청한 아일랜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로존의 통화정책을 감독하는 유럽중앙은행(ECB)도 아일랜드와 EU와의 구제금융 합의를 환영하면서 "IMF가 구제금융 자금 조달에 참여하고 유로존이 아닌 스웨덴과 영국도 아일랜드에 자금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이날 워싱턴에서 성명을 통해 "IMF는 아일랜드에 대해 수년간의 자금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에 IMF가 참여한다는 계획을 명확히 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은 EU 공동체 예산에서 재정위기 회원국에 신속히 지원되는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FSM)과 특수목적법인이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 조성하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병행, 활용된다.

아일랜드 정부는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재정적자를 201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줄이는 강도높은 긴축재정을 추진하게 된다

. 아일랜드에 대한 EU+IMF 구제금융 규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가운데 1000억유로 미만이 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와 아일랜드 현지 언론매체들은 구제금융 규모가 770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역시 70억파운드에 달하는 긴급 자금을 아일랜드에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우라늄 핵폭탄 왜 그렇게 위협적?

장거리미사일 장착땐 전세계 공포

북한이 제조 기술과 시설을 모두 갖춘 것으로 전해진 우라늄 핵폭탄은 거의 모든 면에서 종전의 플루토늄탄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원료핵물질, 쉽게 구한다** = 우선 원료 물질인 HEU(고농축우라늄)를 만드는 과정이 매우 간단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우라늄탄을 만들려면 천연 우라늄에 0.7% 정도 들어있는 U-235(원자량 235인 우라늄)를 90% 이상으로 농축시키는, HEU 제조 기술이 필요하다. 자연상태에서 99% 이상을 차지하는 U-238(원자량 238인 우라늄)은 핵분열을 일으키지 않아 무기나 발전용으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U-235를 분리해 농축시키는 장치가 바로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원심분리기다. 1분당 수만 번을 돌아가는 초고속 원심분리기 안에 우라늄 가스를 주입, 원심력과 무게의 차이를 이용해 U-235를 분리해낸다.

U-235를 2~3% 정도로 농축한 LEU(저농축우라늄)는 경수로의 원료로도 사용될 수 있다. 문제는 LEU를 원심분리기에 넣어 농축 과정을 반복하면 추가적인 기술이나 장비 없이도 HEU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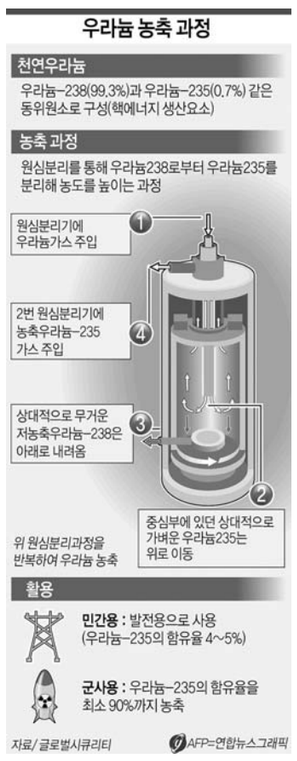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황일수 교수는 "우라늄을 저농축할 수 있으면 이를 반복해 고농축우라늄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다"면서 "국제적으로 핵실험이 금지된 상황에서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무기 개발이 훨씬 더 위협적이유"라고 지적했다.

반면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는 플루토늄은 반드시 원자로의 핵분열 과정을 거쳐야 구할 수 있다.

◇**우라늄 농축시설, 탐지 어려워** = 우라늄 농축 시설은 비교적 좁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고, 방사능 물질도 거의 배출하지 않아, 인공위성 같은 첨단 관측장비를 써도 탐지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상 우라늄탄 1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HEU 20㎏ 정도는, 신형 원심분리기 2000대를 완전 가동할 경우 6개월이면 뽑아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원심분리기 설치에 필요한 공간이 대당 1㎡를 넘지 않는데다 지하 깊숙이 숨기면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우라늄탄, 경량화에 유리?** = 느린 압축으로도 폭발을 일으키는 우라늄탄은 그만큼 기폭장치도 간단하다. 원자폭탄이 되기 위한 임계질량(핵분열 유지 최소 질량)은 우라늄이 20㎏으로, 플루토늄(10㎏ 이하)의 2배 이상인데, 장거리미사일에 핵폭탄을 탑재해 발사할 경우 우라늄탄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우라늄탄의 경량화 부분에 대해서는 핵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



보즈워스 "北 우라늄농축은 도발행위"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2일 북한이 최근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공개한 것과 관련, "이것은 우리가 거의 20년 동안 대처해 온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텝)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것은 명백히 실망스런 발표이고 북한에 의한 또 다른 일련의 도발행위"라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번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포용(engagement)을 위한 포용'이나 단지 '대화를 위한 대화'를 믿지 않는다"며 "북한이 실질적으로 진정성과 의지를 갖고 대화와 토론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선 "6자회담의 어떤 절차도 결코 끝났다고 선언하지 않겠고 그것은 아직 살아있다. 그것을 소생시킬(resuscitate)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한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가능성과 관련해선 "나는 우리가 미래에 할것과 하지 않을 것을 예단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ISIS "비밀원심분리시설 더 있을수도"

북한은 최근 미국 전문가들에게 공개한 2000개의 영변 원심분리기와는 별도로 과거에 이미 원심분리기 설비를 비밀리에 구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미국의 권위있는 핵전문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에 의해 제기됐다.

ISIS는 이런 분석을 근거로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영변 원심분리기 설비는 다른 장소에 있던 원심분리기들을 옮겨온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ISIS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불능화 절차가 완료된 지난해 4월 당시 영변 지역에 원심분리기 설비 공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 지역에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구축한 공장을 이토록 빨리 만들었다는 것은 이 공장이 북한의 첫 원심분리기 설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내 금융회사 위험노출액 18억달러"

금감원 "재정위기 영향 제한적"

금융감독원은 22일 아일랜드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것과 관련,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아일랜드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18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기업 등이 조세부담 완화 목적 등으로 아일랜드에 설립한 법인에 대한 익스포저가 15억6000만달러로 전체의 85.9%를 차지, 이를 제외할 경우 아일랜드에 대한 익스포저는 2억5000만달러에 불과했다. 익스포저는 국내 금융회사의 아일랜드 기업 등에 대한 대출, 유가증권 투자, 지급보증을 합한 금액이다.

국내은행이 아일랜드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억달러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신청 이후 불확실성이 완화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주가가 상승하고 유로화 환율도 절상되고 있다"며 "아일랜드 위기가 심화되더라도 익스포저나 외화차입 규모가 크지 않아 우리 금융기관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